

종합·해설

정치권 '빅뱅' 시작되나

한·미FTA 처리후 '이합집산' 급물살 탈듯 여권 신당론 난무 속 범야권도 대변화 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당장, 안철수(안철수 바람)로 나타난 민심 이반을 계기로 여야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통합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신당론과 분당론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치 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정치 지형이 뒤 바뀌는 '빅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는 당정청 쇄신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한미 FTA 처리 이후로 미뤄 놓았지만 각 세력 간의 물 밑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연말 창당'이라는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한 '박세일 신당'에 이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신당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진이 신당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친박(친박근

혜)과 당권파, 쇄신파가 전략적 연대를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 분열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이후, 여권의 정치지형 변화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이라며 "문제는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략한 진이 그룹이 어떠한 정치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범야권의 내부 지형도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민주당과 친노(친노무련), 시민사회의 '혁신과 통합',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내달 17일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야권 지형은 대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과 친노, 국민참여당 등 진보정당은 일단 자체 소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이 향후 행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이 출현한다면 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6.2%로 한나라당(23.4%), 민주당 후보(1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도 성향으로 여야의 지지 기반이 겹치는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된다면 기존의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통합의 핵심은 안철수 원장의 참여 여부가 될 것"이라며 "안 원장이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면 내년 총선 구도는 물론 대선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

야권 '원샷통합전대'로 가닥잡나

대표문제·모바일 전면도입·정파별 배려 등 쟁점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정당 출범 방식이 '원샷 통합 정당대회'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혁신과통합, 박원순 서울시장 등 3자로 구성된 연석회의 준비모임은 공동협의의 기구를 가동해 14일부터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

핵심 쟁점은 지도부 구성 방식이다. 이는 전대를 민주당 전대 후 통합전대(투샷)로 할 것인지, 민주당 전대 없이 통합전대(원샷)로 치를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투샷 방식은 공동대표 체제, 원샷은 단일대표 체제를 의미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통합정당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통합이 지분 나누기 모습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원샷 전대를 주장하고 있다.

혁신과통합도 예초 투샷 방식을 선호했지만 최근 들어 원샷 전대에 중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과통합 상임대표인 이해찬 전 총리는 13일 연석회의 준비모임에서 "통합전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샷 방식을 도입하면 혁신과통합이 조직력에서 밀릴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해 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샷 전대도 갈 경우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는 단일지도체제보다는 한꺼번에 투표한 뒤 득표 1위가 대표가 되고 그 다음 순위부터 최고위원을 맡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한 방식으로 통한다.

원샷이나 투샷이나를 결정하는 데는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혁신과통합은 대의원이나 당원 외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모바일투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해온데다 모바일투표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

이 이유 등을 들어 모바일투표 전면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지분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통합과혁신 등 참여 주체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민주당이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 원샷전대에 대한 반발이 많다는 점. 때문에 14일 오후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계획한 대로 12·17 통합 전대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 작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도 "야권통합전대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지만 불가항력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전대를 개최해 지도부를 이양한다는 생각을 내 부적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1500억 상당 사회 환원"

안철수연구소 지분 절반 기부하기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 지분은 37.1%로 사회에 환원될 금액은 1500억 원 상당이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안철수 연구소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 그것은 나눔에 관한 것"이라고 운을 뗐 뒤 "제가 가진 연구소 지분의 반 정도를 사회에 위해 쓸 생

각"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떻게 쓰이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러 결정하겠지만,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가처의 혼란과 자원의 편중된 배분이며, 그 근본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처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마음껏 재능을 키워가지 못한



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들을 국가가 일거에 모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앞장서서 공동체를 위해 공헌하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사회환원 배경도 설명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상향식 공천보장맨 통합 합류"

평민당 한화갑대표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상향식 공천보장 등 정치개혁을 전제로 야권통합 합류의사를 밝혔다.

14일 평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상향식 공천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소수정당 배려 등 정치개혁이 이뤄지고 야권 전체 대통합이 성사되면 합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정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의 내용에 대해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을 이루고 국고보조금도 중앙당 독식이 아니라 시·도당에 나눠줘 시·도당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 권한도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에 개방함으로써 정당정치에 패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은 "야권의 통합 전당대회가 예정된 다음달 17일 이전에 합류 여부를 결



정하지 않겠느냐"며 "통합 참여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의 본류를 배제한 채 '도르 열린우리당'이 돼 버려 야당의 정통성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황주홍 강진군수 "총선 출마"

"내달 10일께 사퇴"

황주홍 강진군수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군수는 14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장흥·강진·영암 지역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기량을 총동원해 지역 발전과 나라 정치 발전에 헌신코자 출마하려 한다"라며 "다음달 10일께 군수직에서 사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맡겨 주신 4년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 전체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위치에 고향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총정의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군수는 "5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 군수 보궐선거 비용은 국회의원 당선 6개월 이내에 그 10배 이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군민과 공직자들의 성원을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복당과 관련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치며 탈당했지만 정당 정치를 고려할 때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혁신과 통합'을 포함한 야권 단일후보, 무소속 출마 등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2004년 10·31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처음 당선된 이후 민선 4, 5기 선거에서 각각 민주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해 잇따라 당선됐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주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하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병문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제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벅스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증금5천만원/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 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2차 모야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획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양도세 혜택
- ★항시 건축토지구합

(주)대신종합건설 ☎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선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말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9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윤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능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 101평 계획권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